

# 나주 호혜원 한센인들 새 동지 생겼다

### 50세대 규모 '양로주택' 준공 200여명 참석 입주식 개최 혁신도시 축산 악취도 해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으로 갈 곳을 잃은 호혜원 한센인들을 위한 간이양로주택이 준공됐다.

나주시는 30일 나주 산포면 옛 신도초등학교 분교 부지 '호혜원 한센 간이양로주택'에서 강인규 시장과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 도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행사를 개최했다.

호혜원 한센 간이양로주택은 혁신도시 건설 이후 입주민들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악취원인 호혜원 축산폐업을 요구해 축산폐업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건립됐다. 간이양로주택은 산포면 옛 신도초등학교 분교 부지 연면적 5215㎡(지상1층, 2층)에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30억원 등 총 90억원을 투입해 양로주택 8개동 50세대, 주민편익 시설 1개동 규모로 건립됐다.

호혜원은 1940년대 광주시 양림동 하천에



지난 30일 나주시 산포면 옛 신도초등학교 분교 부지 '호혜원 한센 간이양로주택'에서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 도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 행사가 열렸다. (나주시 제공)

서 광주시 극락강변을 거쳐 한센인 370명이 나주시 산포면에 모여 생활터전을 잡았다.

1971년 육영수 여사가 기증한 씨돼지 12마리로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했으며 생계수단이 됐다.

호혜원은 2013년 인근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호혜원의 돈사 악취문제가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호혜원에 악취문제는 2015년 호혜마을 주민들과 축산폐업 합의로 악취문제가 해결되었고, 현재 보상과 철거가 진행중이다.

양로주택 신축사업은 지역발전을 우선 하되 생계까지 포기한 주민들에게 열악한 주거시설과 생활기초시설의 정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2016년 국고보조사업이 결

정되어 이뤄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입주식은 호혜마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생계수단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어주는 결단"이라며 "시와 시민들은 한센 가족들의 양보에 감사하며 서로가 자랑스런 나주인으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나주시 납세자 권리현장 개정·공표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등 권익보호 강화

나주시가 납세자 권리현장을 전면 개정·공표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현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현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납세자 권리현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화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도입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마

을 주민들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3명의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화, 팩스, 현장 상담 등 이달까지 총 230여건의 세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여성, 노인 등 법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알기 쉬운 상담을 통해 생활 속 세금 관련 고민을 해소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에서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 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현장 전면 개정으로 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강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 변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세금 상담 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도울실버타운, 노인장기요양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나주시 남평읍 소재 도울실버타운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장기요양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울실버타운(대표 임화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기관 정



기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사진)

지난 2017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최우수기관 A등급 선정에 이어 쾌거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과 현장 중심으로 실시했다.

도울실버타운은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또 도울실버타운은 전국 4287개 장기요양기관 중 최우수기관 상위 20% 이내에 포함돼 최우수기관에 지원되는 가산금과 인증현판을 받았다.

임화신 도울실버타운 대표는 "제가 장기요양 최우수기관, 2년 연속 요양시설 최우수기관 선정 성과는 지역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열심히 모시는 선생님들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 요양보호사님들 덕분"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빛가람 호수공원 등 모기 천적 미꾸라지 6만마리 방사

나주시가 친환경적으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류했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빛가람 호수공원, 유전저수지, 대호수변공원 등 5곳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미꾸라지 6만마리 방사 행사를 가졌다. (사진)



방사된 미꾸라지는 1년생 이하로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1마리 당 하루에 말라리아 모기 매개인 중국열혈날개모기 유충을 600마리 이상, 일본뇌염 모기 유충을 1100마리 이상 잡아먹는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미꾸라지는 하천이나 호수 바닥 진흙에 들어가 산소를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등 일석이조의 친환경 방제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 보건소는 미꾸라지 생존여부 및 모기 유충 개체수를 지속 확인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모기성충을 잡는 것보다 모기유충을 잡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며 "주민들 스스로 방치된 쓰레기, 페타이어 등 모기유충의 서식 의심지역의 환경 개선에 동참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여름철 모기 유충 제거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발생 서식지 제거, 해충퇴치기 설치, 친환경 미꾸라지 방사, 수생식물에 무해한 비트제 투입 등 물리적,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복암리 고분전시관, 어린이 대상 동물농장 체험행사



나주 다시면에 위치한 '복암리 고분전시관'이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두힐 동물농장' 체험 행사(사진)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복암리 고분전시관이 주관하는 이번 체험행사는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중 하나로, '두힐 동물농장' 체험은 나주 지역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체험 행사는 당나귀, 칠면조 등 전시관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먹이를 주고 당나귀 마차 타기 등

교감을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정호 복암리 전시관장은 "동물원에 가지 않고서는 보기 힘든 당나귀를 가까이 볼 수 있고, 직접 마차도 타고 먹이도 주면서 교감할 수 있으니 동심 가득한 아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이 생길 것이다"며 "나주 지역 많은 아이들이 체험 행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험 행사 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참여 신청은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또는 자유학기제 사이트 '꿈길'에 접속해 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